

## 18세기 후반 전라도 장흥지역의 농업과 농민\*

- 위백규(魏伯珪)의 농시(農詩)를 중심으로 -

염정섭\*\*

<차 례>

1. 머리말
2. 곡물경작법의 특징
3. 흉년과 기근, 그리고 구황(救荒)
4. 농촌 현실의 폐단과 대응
5. 맺음말

### <국문초록>

위백규의 농시를 중심으로 18세기 후반 전라도 장흥 지역의 농업과 농민의 실상을 찾아볼 수 있다. 벼농사의 경우 이앙법(移秧法)을 채택하면서 이앙시기의 물문제와 노동력 동원 문제가 매우 중요하였다. 가을에 파종하여 초여름에 수확하는 곡물인 보리는 요긴한 먹거리였지만 보리 수확의 시기가 이앙(移秧)하는 시기와 겹쳐서 농가에 어려움을 주고 있었다. 장흥 농민들이 겪은 자연재해 가운데 충해(蟲害)와 한해(旱害)가 피해를 가져다주고 있었다. 흉년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기근(饑饉), 역병(疫病) 등을 동행하였다. 농민들의 입장에서 구황방(救荒方)을 직접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구황식물(救荒食物)을 획득하고 이를 조리하여 구황하는 사정을 황정(黃精), 상실(橡實), 자고(茨菰), 갈근(葛根), 유근(楡根) 등의 농시(農詩)를 통해 알 수 있다.

장흥지역 향촌 사회에서 농민들이 부딪히는 농촌의 여러 폐단 가운데, 이앙기(移秧期)와 같은 농번기에 고농을 고용하지 않을 수 없는 여건에 주목할 수 있다. 고농 때문에 힘겨워하는 농인(農人)의 처지를 찾아볼 수 있다. 위백규는 자신이

\* 이 논문은 2014년도 한림대학교 교비연구비(HRF-201412-001)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림대학교 사학과 교수.

목격한 환곡을 둘러싼 문란한 세태를 적실하게 묘사하였다. 그는 보리수확이 끝나자마자 보리 환자를 서둘러 받아가려는 검독관(檢督官)과 창감(倉監)의 행태와 이들이 농인(農人)에게 돈과 먹을 거리를 토색질하는 장면을 선명하게 그려냈다. 그리고 흉년과 기근의 참혹함, 역병의 참상, 부세행정의 문란함 등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육식(肉食)하는 사람은 즉 벼슬아치라고 지목하고 있었다.

주제어 위백규(魏伯珪), 농시(農詩), 장흥(長興), 구황(救荒), 농인(農人)

## 1. 머리말

존재(存齋) 위백규(魏伯珪, 1727~1798)는 18세기 중후반에 전라도 장흥(長興)지역에서 향촌사회의 실상을 깊이 천착하여 나름의 개혁방안을 제시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sup>1)</sup> 위백규는 경학(經學), 경세학(經世學) 등을 깊이 연구한 성과와 자신의 향촌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향촌사회 개혁방안을 구상하고 제시하였다.

위백규의 본관(本貫)은 장흥이고, 자(字)는 자화(子華)이며, 호(號)는 존재(存齋) 또는 계항(桂巷)이라 하였다.<sup>2)</sup> 그는 생애의 대부분을 전라도 남쪽 해안 지역에 위치한 장흥지역에서 보냈고 말년에 잠깐 동안 옥과현감을 역임하였다.<sup>3)</sup> 위백규가 성장한 고향이자 장흥 위씨의 본향(本鄉)인

1) 魏伯珪의 생애에 대해서는 다음 논저에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참고하였다. 李海濬, 『存齋 魏伯珪의 社會改善論-18세기말 鄉村의 自律性摸索을 中心으로-』 『韓國史論』, 서울대 국사학과, 1979, 234~245쪽; 金碩會, 『존재 위백규의 문학 연구-18세기 향촌사족층의 삶과 문학-』, 以會文化社, 1995, 27~63쪽.

2) 『存齋集』 권24, 附錄, 『行狀』(宋釋圭)(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DB-한국문집총간 243에서 인용: 이하 동일); 魏伯純, 『書溪先生遺稿』 권3, 行狀 『伯氏存齋先生行狀』(경인문화사, 한국역대문집총서 477, 『書溪先生遺稿』)

장흥부의 방촌(傍村)은 전라도에서도 저 멀리 남쪽 구석에 자리한 궁벽하고 외진 곳이었다. 위백규는 숙조(叔祖)인 위세린(魏世璘)에게 지극한 사랑을 받으며 초보적인 한자 해독을 배웠다고 알려진 것 외에는 학문 기반 형성에 뚜렷하게 영향을 끼친 인물을 찾을 수 없다.

20대 중반에 이르렀을 때 위백규는 충청도 덕산(德山)에 거주하던 병계(屏溪) 윤봉구(尹鳳九)를 찾아가서 사제(師弟)관계를 맺었다. 당시 위백규는 25세의 연소 청년이었고, 윤봉구는 72세의 노인이었다. 『대학(大學)』, 『중용(中庸)』을 수강(受講)하면서 시작된 위백규와 윤봉구의 사제 관계는 이후 15년 간 계속되었다. 윤봉구는 위백규의 학문적 성취를 높여준 계도자였고, 그런 만큼 위백규는 윤봉구에게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있었다. 존재(存齋)라는 위백규의 호(號)는 바로 윤봉구가 존존재(存存齋)라는 글귀를 써주었고, 이를 받아들인 위백규가 자신의 서재 이름을 존재(存齋)라고 지어준 데서 연유한 것이었다.

위백규는 향촌에 거주하던 유학자로서 포기하기 어려웠던 과거(科擧) 응시를 포기하고 대신 학문 연마에 몰두하였다. 당시 향촌에 거주하던 사족(士族)들이 집안을 크게 일으킬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위백규는 39세에 생원복시에 입격(入格)하고 나서 과거(科擧)에 대한 뜻을 단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4)</sup> 이후 그는 향촌에서 영농(營農)에 종사하고, 문중(門中) 활동을 펼치며, 강학(講學) 활동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목도하고 있는 향촌사회 현실에 바탕을 두고 이를 비껴나갈 방도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저술활동을 수행하였다.

3)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DB, 한국문집총간의 『存齋集』 해설 참고. 魏伯昊는 叔祖인 魏世璘의 侍養孫으로 들어갔다.

4) 김석희(1995), 앞의 책, 44~50쪽.

위백규가 1798년 죽은 뒤에 그가 남긴 시문(詩文)을 모아 『존재집(存齋集)』(22권 11책)이 편찬되었다. 위백규는 살아 생전에 『지제지(支提志)』, 『환영지(寰瀛誌)』, 『정현신보(政弦新譜)』, 『예설(禮說)』, 『경서조대(經書條對)』, 『경서차록(經書筭錄)』, 『고금(古琴)』, 『시소전기서설(詩疏傳記序說)』 등의 저서를 집필하였다. 위백규가 말년에 이르렀을 때 조정에까지 그의 학문적 성취가 널리 알려졌다. 또한 후대의 학자들에게도 남도(南道)의 학자로 이름이 길이 전해졌다. 홍직필(洪直弼, 1776~1852)은 위백규에 대하여 “천문(天文), 지리(地理), 율력(律曆), 복서(卜筮), 병도(兵韜), 산수(山水) 등을 망라하지 않은 바가 없고 백공기예(百工技藝)의 원리를 충실히 이해하여 기형(機衡)<sup>5)</sup>을 직접 제작하였는데, 도수(度數)에 차이가 없었다”<sup>6)</sup>라고 평가하였다.

이와 같이 위백규는 향촌 지식인으로서 여러 방면에 많은 업적을 남긴 학인(學人)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위백규를 향촌 사정에 정통한 인물로 간주할 수 있고, 그의 글 속에서 장흥 지역 농촌과 농민의 실정에 대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위백규의 행적과 사상 등에 대하여 그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위백규에 대한 관심은 문학, 역사,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표출되었지만, 특히 문학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전개되었다. 한국사와 관련해서 이해준이 위백규의 사회개선론을 정밀하게 정리한 연구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sup>7)</sup> 그리고 문학적인 측면에서 김석회는 위백규가 지은 농시(農詩)를

5) 機衡은 璇璣玉衡을 말한다. 天體의 運行과 그 位置를 測定하는 儀器이다. 세종대를 비롯하여 여러 왕대에 제작되어 天文 관측에 활용되었다. 영조대의 선기옥형 제작은 다음 실록 기사에 보인다. 『英祖實錄』 卷32, 英祖 8年 8月 5日 己未 (42책 315쪽); 璿璣玉衡成 命製述官趙明翼製銘 監役官以下 施賞有差.

6) 魏伯珪, 『存齋集』 권24, 『墓誌銘』(洪直弼 撰).

7) 李海濬(1979), 위의 논문, 233~302쪽.

포함하여 생활시(生活詩) 전반에 걸쳐 자세한 작품분석을 수행하였다.<sup>8)</sup> 이외에 위백규가 남긴 『농가구장(農歌九章)』을 살핀 많은 문학 관련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위백규의 한시(漢詩)를 집중적으로 다룬 박명희의 연구,<sup>9)</sup> 한시 뿐만 아니라 시조, 가사를 함께 검토한 최상은의 연구<sup>10)</sup> 등도 나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백규의 농시(農詩)를 중심으로 분석 검토하고, 그 외에 동시기에 농업과 농민에 관한 다른 자료들을 참고하여, 전라도 장흥지역의 농업현실과 농민실상을 정리하려고 한다. 위백규의 농시에 대한 검토는 이미 김석희를 비롯한 연구에서 살펴보았지만, 여기에서는 농업현실과 농민실상과 관련시켜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두려고 한다. 이러한 연구시각은 생활시(生活詩), 농민시(農民詩) 등으로 명명되는 사회시 성격의 한시가 갖고 있는 현실반영의 측면에 주목한 것이다.

위백규의 생애에서 40대 전반에서 50대 전반에 이르는 시기는 궁경독서기(躬耕讀書期)로 설정되고 있다. 41세 여름에 사강(社講)을 설행(設行)한 것을 계기로 독경병행(讀耕並行)의 문중활동(門中活動)을 전개하면서 자영농적(自營農的)인 처사(處士)의 생활에 들어가게 된다.<sup>11)</sup> 이러한 위백규 개인사를 고려할 때 그의 농업, 농촌, 농민 관련 한시를 통해 장흥 지역의 실상을 살피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8) 金碩會(1995), 앞의 책, 355~369쪽. 본문에 인용한 위백규의 농詩 가운데 『罪麥』, 『麥對』, 『年年行』 1,2, 『靑麥行』의 원문은 이 책에 활자화된 것을 『存齋全書』에 실려있는 것과 대조하여 확인하였음을 밝혀둔다. 그리고 번역문의 경우 발표자가 일부 수정하였다.

9) 박명희, 『存齋 魏伯珪의 현실인식과 시적 형상화』 『古詩歌研究』 18집, 한국고시가학회, 2006, 125~152쪽.

10) 최상은, 『18세기 시가의 정서와 현실인식 지향 - 위백규(魏伯珪)의 한시(漢詩), 시조(時調), 가사(歌辭)를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24권, 반교어문학회, 2008, 53~77쪽.

11) 김석희(1995), 위의 책, 50~56쪽.

소개한 연구성과 가운데 김석희의 연구는 위백규 한시(漢詩)의 작품세계를 살펴면서 ‘구황식물 연작’, ‘보리 연작’, ‘연년행 연작’ 등으로 특화시켜 검토한 것이라는 점에서 본 논문의 문제의식과 연결되어 있다.

다만 여기에서는 그의 한시를 곡물경작법, 흉년·기근·구황(救荒), 농촌문제와 대응이라는 당시의 현실문제와 연결시켜 살펴본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위백규의 농시를 당대 인물들이 지은 다른 저작과 비교하면서 전라도 장흥 지역의 주민들이 살아나갔던 농업생산에서의 실상, 그리고 농민들이 겪어야 했던 실제적인 삶의 현장을 찾아나가는 데 주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특히 곡물경작법과 농업여건의 특색(特色)을 제대로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당시에 편찬된 농서(農書)와 위백규의 농시를 같이 검토하면서 벼농사, 보리농사의 특색 등을 정리하려고 한다.

다음으로 장흥 지역 농민들이 맞닥뜨려야 했던 역경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자연재해와 흉년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기근이었다. 흉년을 이겨내는 방책으로서 구황(救荒)은 조정에서는 물론 군현에서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과제였다. 하지만 결국 실제로 흉년을 극복하고 기근에서 생환하는 것은 농민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위백규의 농시를 중심으로 당시 장흥 지역 농민들이 부딪혔던 흉년, 자연재해, 구황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백규의 농시와 다른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향촌 사회에서 농민들이 부딪히는 각종 폐단과 이에 대한 대응을 살펴볼 것이다. 18세기 조선의 농업, 농촌, 농민을 괴롭히던 고질적인 폐단 가운데 가장 커다란 것은 바로 부세(賦稅) 즉 삼정(三政)의 문란과 서리(胥吏)의 농간(弄奸)이었다. 장흥 지역 농민에게도 부세와 서리는 폐단의 근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정리할 것이다.

## 2. 곡물 경작법의 특징

위백규가 지은 농시(農詩)에서 전라도 장흥 지역의 벼, 보리 등 곡물의 경작법과 농업여건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전라도 장흥 지역의 농업기술과 농업환경의 실상을 매우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벼와 보리를 재배하는 과정이나 특징적인 기술양상에 대한 묘사가 매우 정교하고 상세하다고 보인다. 조선 후기에 편찬된 농서(農書)나 다른 자료에 보이는 농법(農法) 설명과 더불어 위백규의 농시를 함께 비교 검토할 만하다.<sup>12)</sup>

위백규의 농시는 18세기 후반 전라도 장흥지역의 벼농사가 기본적인 경종법(耕種法)으로 이양법(移秧法)을 채택하고 있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위백규는 『연년행(年年行)-일(一)』에서 늦은 모내기<晚秧>에 역점이 없는 정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晚秧豐歉較一午	늦은 모내기 한나절 차이에 풍흉이 갈리나니
覓雇呼傭相喧鬪	품 구하고 일꾼 부르며 서로 소리질러 다투네.
誰謂早餘仍作霖	뉘라 일렀던가 가뭄 끝에는 곧 장마라고
囊笠價倍腐襪襪	삿갓 값은 배로 뛰었는데 도롱이는 썩어가네. <sup>13)</sup>

위 구절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당시 이양(移秧)하는 작업이 장흥 지역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벼농사 방법이였다. 이양법의 경우 이양시기의 물문제와 노동력 동원 문제가 매우 중요하였다. 특히 이양시기를 제때 맞추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이였다. 제 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양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이양을 제 때 하게 되었다고 하더

12) 조선 시대 이양법의 보급, 확산과 관련해서 다음 논저를 참고할 수 있다. 金容燮, 『朝鮮後期農業史研究』 II, 一潮閣, 1970; 김용섭, 『增補版朝鮮後期農業史研究』 II, 一潮閣, 1990; 임정섭, 『조선시대 농법 발달 연구』, 태학사, 2002.

13) 魏伯珪, 『存齋全書』 卷1, 『年年行一』(경인문화사 편, 1974 『存齋全書』 上, 35쪽).

라도 노동력을 동원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일꾼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커다란 부담이었다. 늦은 모내기를 할 수 있는 것 자체는 다행이지만 “삿갓 값이 두배되고 도롱이마저 찢어가네”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가뭄에 이은 장마는 모내기에 들어가는 비용의 측면에서 더욱 부담을 깊어지우는 것이었다. 가뭄 뒤에 장마가 단비일 수 있지만, 장마가 너무 심해 오히려 힘들어진 상황을 묘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농민들의 농사짓기는 온갖 암초들이 널려 있는 고난의 행군의 연속이었다. 특히 만양(晩秧) 즉 늦모를 너무 늦게 내면 일찍 내리는 서리를 맞게 될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었다. 비가 서리를 맞게되면 생육에 지장을 받아 분얼수가 감소되고, 그리하여 적정한 이삭수에 못미치게 되기 때문이었다. 이양할 시기가 늦어질수록 수확량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이양작업을 신속히 끝내는 것은 한 해 농사의 풍흉을 결정짓는 관건이었다.

다음으로 위백규의 농시 『죄맥(罪麥)』, 『맥대(麥對)』, 『청맥행(靑麥行)』 등을 통해 장흥 지역에서 실행되던 보리농사의 여러가지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 보리는 가을에 파종하여 초여름에 수확하는 곡물로 신구(新舊) 미곡(米穀) 사이를 이어주는 요긴한 먹거리였다. 지난해 거두워 먹었던 지난해와 올해 거두워 먹게될 새벼 사이에 농가(農家)의 먹거리를 해결해주는 곡식이었다. 『농사직설(農事直說)』은 “대맥(大麥, 보리)과 소맥(小麥, 밀)은 신구간(新舊間)에 먹을 거리를 이어주니 농가에서 가장 급한 일이다”<sup>14)</sup>라고 설명하였다. 위백규는 『청맥행(靑麥行)』에서 수확한 보리로 밥을 지어 배부르게 먹고 나서 웃음소리가 가득한 집안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14) 『農事直說』, 種大小麥; 大小麥 新舊間接食 農家取食.



措大家中安有此	조대(措大, 선비)의 집안에 어찌 이런 것이 있 으련만
先聞香臭雙鼻觸	향긋한 냄새 먼저 퍼지며 두 코를 찌르네.
一匙二匙甘如蜜	한 술 두 술 달기가 꿀맛 같아서
盡盃便欲旋手脚	그릇이 비기가 바쁘게 손과 다리 부산하다네.
隣翁賀免窘	이웃집 할아버님은 군색함을 면케 된 것을 치하 하고
稚子求飽喫	어린 새끼들은 배가 부르도록 먹었네.
一室始吐氣	온 가족들 트림하며 나왔으니
喧笑溢房屋	웃음소리 방마다 넘쳐나네. <sup>15)</sup>

위에서 묘사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보리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보리고개를 넘어왔다는 안도감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초여름 밭의 보리가 아직 여물기 전에 묵은 곡식은 동이 나서 농가에서는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된다. 보리의 ‘풋바심(채 익기 전의 벼나 보리를 미리 베어 떨거나 훑는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견디어야 하는 이 시기를 보릿고개 즉 맥령(麥嶺)이라 하였다. 이러한 늦은 봄에서 초여름에 걸쳐 생기는 농가의 궁핍 시기가 바로 춘궁기(春窮期)였다. 따라서 보리를 수확하여 향긋한 냄새를 풍기는 밥을 지어 한술 두술 먹고 있다는 자체가 뱃속에 먹을 것이 들어간다는 느낌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에서 커다란 안도감을 주는 것이었다.

위백규는 보리가 갖고 있는 곡물로서의 자격에 대하여 「맥대(麥對)」에서 중국의 신화적 설명을 바탕으로 역사적 설명을 붙였다.

造化中一物

造化(造化) 가운데의 한 물건으로

15) 魏伯珪, 『存齋全書』 「青麥行」 (경인문화사 편, 1974 『存齋全書』 上, 8쪽).

關初生原暘	그 처음엔 들판에서 자라났네.
自秀還自實	스스로 이삭이 꽤고 열매를 맺어
匪願爲民糧	백성의 양식이 되려는 것은 아니었네.
特取參稻黍	특별히 취하여 벼와 기장 사이에 넣어주니
聖人其姓姜	성인(聖人) 가운데 성씨가 강(姜)인 분이었네.
秋生夏而熟	가을에 나서 여름에 익으니
受氣均陰陽	음양(陰陽)의 기운을 고루 받았네. <sup>16)</sup>

위의 구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위백규는 보리가 벼와 기장과 더불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곡물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강성(姜姓)의 성인(聖人) 즉 신농(神農) 덕분이라고 지적하였다. 중국의 신화적 인물인 신농은 농업, 의학의 지식을 창안한 성인(聖人)으로 전해지고 염제(炎帝)라고도 불린다.<sup>17)</sup>

보리 재배에서 중요한 기술적인 부분은 기경, 파종, 그리고 수확이었다. 그런데 위백규의 농시에 기경이나 파종에 관해 묘사한 부분을 찾기 어렵다. 하지만 수확에 대하여 언급한 대목을 「죄맥(罪麥)」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에 따르면 보리 수확의 시기가 이양(移秧)하는 시기와 겹쳐서 농가에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었다.

偏異收穫候	거두는 절기 또한 편벽되어 달라서
巧妨分秧力	공교롭게도 모내기 할 노동력을 분산시키네.
正當五月炎	마침 오월 염천(炎天)을 만나니
必待千鞭撲	만드시 천 갈래 도리깨질을 해야 하네. <sup>18)</sup>

16) 魏伯珪, 『存齋全書』 「麥對」, (경인문화사 편, 1974, 『存齋全書』 上, 7쪽).

17) 『史記』, 三皇本紀(司馬貞唐); 炎帝 神農氏 姜姓 母曰女登 有蟠氏之女 爲少典妃 感神龍而生 炎帝人身牛首 長於姜水 因以爲姓 火德王 故曰炎帝 以火名官 斲木爲耜 揉木爲耒 耒耨之用 以教萬人 始教耕 故號神農氏.

보리 수확 작업은 반드시 천 갈래 도리깨질을 해야 한다고 묘사한 것처럼 도리깨질의 횟수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야 했다. 그리고 보리수확과 벼 이앙시기가 겹쳐서 더욱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었다. 보리 수확이 공교롭게도 벼모를 이앙하는 시기와 겹쳐서 농가의 일손을 쪼들리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보리 재배에서 특히 보리를 타작하는 과정은 매우 어렵기 짝이 없는 작업이었다. 위백규의 보리 타작 묘사는 너무나 생생하여 마치 옆에서 지켜 보고 있는 것같은 느낌을 독자들에게 전해주고 있다.

毒塵靈風檻	독 먼지 흄비 바람 가득찬 우리에
獐芒蝥汗額	모진 까끄라기는 땀뻘 이마에 독벌레처럼 쏘네.
縣夫髮被蓬	태질하는 남편 머리 봉발되었고
箕妾體生蠶	키질하는 부인 몸에 독이 오르는 듯하네.
可怪穀連膚	괴이하게 보리 껍질이 피부에 달라붙으니
那堪春憊脚	방아질에 노곤한 다리를 어찌 감당할꼬 <sup>19)</sup>

보리타작을 실행하는 ‘남편의 태질’ 즉 도리깨질은 보리 껍질, 까끄라기 등이 흄먼지와 섞여 사방으로 날라다니는 힘든 과업이었다. 도리깨질 하는 남편 머리가 봉두난발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키질하는 부인의 온몸은 마치 독침에 맞은 듯 아프기 그지 없었다. 또한 방아쪼기도 녹녹한 작업이 아니어서 디딜방아에 시달린 다리는 노곤하기 짝이 없었다.

위백규는 자신이 목격한 보리농사에서의 타작작업을 가장 중요하고 힘든 노동과정으로 지목하였다. 본래 작물을 수확한 다음 사람이 식용(食用)으로 이용하려면 일련의 도정작업을 거쳐야 했다. 우선 곡물의 낱알을

18) 魏伯珪, 『存齋全書』 『罪麥』, (경인문화사 편, 1974, 『存齋全書』 上, 6쪽).

19) 魏伯珪, 『存齋全書』 『罪麥』, (경인문화사 편, 1974, 『存齋全書』 上, 6쪽).

떨어내는 작업을 수행하고, 그런 다음 낱알을 곁껍질과 속껍질을 차례로 벗겨내는 작업이 필요하였다. 전자는 타작(打作)이고, 후자는 전체적으로 도정(搗精)이라는 작업에 속하였다. 보리 타작에 동원되는 농기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도리깨였다.<sup>20)</sup> 위백규는 도리깨를 이용한 보리 타작 작업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도리깨질을 비롯하여 보리 타작 작업이 갖고 있는 힘든 노동과정을 제대로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장흥 지역 농업 현실에 대한 견문을 바탕으로 위백규의 여러가지 현실 개혁론이 제기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3. 흉년과 기근, 그리고 구황(救荒)

18세기 후반을 비롯하여 조선시대에 전반적으로 많은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혔다. 조선의 백성들이 직면한 자연재해 가운데 커다란 피해를 주었던 것으로 무엇보다도 수해(水害), 한해(旱害), 충해(蟲害)를 손꼽을 수 있다. 자연재해의 발생은 거의 대부분 흉년으로 나아가는 그리 좋지 않은 첩경이었다.

위백규의 농사에서 자연재해, 흉년, 기근, 그리고 구황(救荒)으로 이어지는 계기적인 사건의 연속을 충실히 묘사한 작품들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그는 충해(蟲害)에 대해서 현실감 있게 묘사하고 있어 역사상을 추정하는 데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다. 충해가 가져다주는 소출 부진, 생산 감소에 대한 일반적인 지적은 다른 사료에서도 자주 발견된다. 하지만 농민들의 농사에서 기대하는 소출에 커다란 위협을 던져주고 있던 실제 충

20) 도리깨는 타작할 때만이 아니라 저습지 개간에서 잡초를 제거하는 데에도 이용하였다. 『農事直說』 種稻; 若沮甚 人牛陷沒 不可入踏之地 用耒耨(鄉名 都里鞭) 殺草下種 一如前法.

해의 위협과 그 실상을 생생하게 알려주는 자료는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위백규가 장흥지역 벼농사에 커다란 피해를 안겨주는 충해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는 대목을 『연년행(年年行)-일(一)』에서 살펴보자.

豈謂滅高之毒蝗	멸구가 제일 악독한 누리임을 어찌 이루 다 말할 수 있으리.
生似糠糜復作患	겨 같이 하찮게 생겨나더니 도리어 못된 짓을 저지르네.
一旬之內滿四郊	열흘 사이에 벌써 온 들판에 가득 차서
嫩青叢綠漸看赤	여린 싹, 푸른 포기가 점점 붉게 시들어가네.
此蟲爲災甚水旱	이 벌레의 재앙은 장마 가뭄보다 더 심하여
壬癸乙丙人相食	임·계·을·병년에 사람이 사람을 먹기까지 하였다네. <sup>21)</sup>

위에서 묘사하는 충해(蟲害)는 멸구, 즉 벼멸구로 인한 피해이다. 벼멸구는 벼줄기의 진액을 빨아먹어 고사시키는 피해를 입히는 해충이다. 위백규는 『연년행-일』에서 독자로 하여금 직접 눈으로 보는 것처럼 벼멸구가 피해를 입히는 과정을 전해주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sup>22)</sup> 벼멸구는 주근원지인 베트남 북쪽과 중국 남부지방에서 월동하다가 한반도에 8~9월에 비래(飛來)해 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나라로 날아온 벼멸구는 눈에 정착하여 교미하고 산란을 하게 된다. 벼멸구 알은 7~10일 후에 부화하여 애벌레가 되어 벼줄기에 붙어 즙액을 빨아서 자라난다. 여러 차례 탈피(脫皮) 과정을 거쳐 어른벌레가 된다. 벼멸구의 애벌레와 성충이 모두 입에 붙은 침으로

21) 魏伯珪, 『存齋全書』 「年年行-一」 (경인문화사 편, 1974, 『存齋全書』 上, 35쪽).

22) 벼멸구에 대한 설명은 아래 보고서에 의거하였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 『2005년도 벼멸구 예찰 방제 보고서』, 2005, 3~10쪽.

벼 줄기세포내 즙액을 빨아먹게 되면 벗잎은 점차 누렇게 변하고 굵기야 줄기가 고사(枯死)하게 된다.

위백규의 『연년행-일』을 통해 당시 벼멸구가 벼농사에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점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다만 그는 벼멸구가 비래하는 해충이라는 점까지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는 벼멸구를 방제하기 위해 말총기, 배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과 벼포기에 물을 끼얹는 방법을 묘사하고 있었다.<sup>23)</sup>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황충(蝗蟲)의 방제법은 위백규가 제시한 그것과 달랐다. 조선왕조실록에 제시된 방법은 두가지인데, 하나는 포획법이고 다른 하나는 재난의 신에게 포제(酬祭)를 올리는 방법이었다. 포획법에는 단순한 잡기인 포황(捕蝗), 주어묻기 방식 <拾而埋之, 捕蝗埋之> 또는 구덩이를 파고 묻는 방식 <掘坎埋置> 등이 들어 있었다.<sup>24)</sup> 이와 같이 황충의 직접적인 방제법은 포획(捕獲)과 매치(埋置)하는 방식이었다. 포제를 올리는 방법은 기양(祈禳) 의례의 성격을 띤 것으로 볼 수 있다. 위백규가 묘사한 황충 방제법은 포획법과 같은 성격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위백규가 자신이 직접 겪은 한해(旱害) 체험을 형상화한 농시를 살펴보자. 그는 한해의 참혹한 피해상을 생생하게 시(詩)로 묘사하였다. 다음은 1762년(영조 38) 위백규의 나이 36세에 체험한 가뭄을 기록한 『고한(苦旱)』이라는 제목의 시이다.

苦旱-壬午	가뭄의 괴로움-임오년
靑冥雲氣太淸風	푸르고 그윽한 구름기운과 너무도 맑은 바람이

23) 魏伯珪, 『存齋全書』 『年年行-一』 (경인문화사 편, 1974 『存齋全書』 上, 35쪽); 披叢逐水勢自急, 手脚俱忙不敢息. … 인(彭+忍)籬布帛爲緊器 數日一易難繼作.

24) 박해철 외 6인, 『조선왕조실록과 해피제등록 분석을 통한 황충(蝗蟲)의 실체와 방제 역사』 『한국응용곤충학회지』 49권 4호, 한국응용곤충학회, 2010, 383쪽.

戲作狂威幻作峯	장난삼아 사나운 바람과 비구름 봉우리를 만드 는 듯하네.
待爾快心然後雨	너의 마음이 즐거워진 연후에 비가 내릴 것이 라 기다리는데
其於人世烈燄烘 枯苗抽芒纔覆阡	이미 인간세상은 세찬 불꽃에 그을려 있다네. 말라버린 모가 겨우 싹 틈어 두렁에 넘어져 있 는데
賊風螟雨日相連 只應肉食憂民食	해로운 바람과 병충해가 나날이 이어지네. 벼슬아치들이 고기를 먹으며 백성들의 먹거 리를 걱정한다면
未必山人愁不眠	굳이 산(山)에 사는 사람 수심(愁心)에 잠 못 들진 않으리. <sup>25)</sup>

위백규가 보기에 가뭄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람들은 불구덩이에 빠져 불에 그을리는 듯 고통에 휩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운(風雲)은 비를 내리는 제 할 일을 하지 않은 채 사람들을 희롱하며 놀고 있는 듯하다. 그는 지금 모에서 겨우 싹이 터서 이만큼 자라난 벼줄기가 쓰러져 가뭄에 타들어 가는 것은 물론이고 병충해에까지 시달리고 있는 것을 차마 보면서 견딜 수 없다. 이런 심각한 가뭄은 곧이어 흉년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위백규가 생활하던 전라도 장흥지역도 빈번히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그에 따른 흉년(凶年)의 어려움에서 예외적으로 벗어난 곳이 아니었다.

흉년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참혹한 기근(饑饉), 공포스러운 역병(疫病) 등을 동행하였다. 조정에서는 흉년이 닥쳤을 때 이를 이겨내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구황(救荒)이었다. 빈발하는 흉년과 그에 이어지는 구황은 조정의 매우 중요한 정사였기 때문

25) 魏伯珪, 『存齋集』 卷之一, 詩, 七言絕句, 苦旱.

에 황정(荒政)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또한 향촌사회 차원이나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구황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실시하였다.

특히 농민들의 입장에서 구황이 필요한 시기에 필수 불가결한 것은 바로 구황방(救荒方)을 직접 실천하는 것이었다. 이는 실제 농민들의 입장에서 생사(生死)가 달린 일이었다. 구황에서 요긴한 것 가운데 하나가 구황식물(救荒食物)을 획득하는 일이었다. 이때 많은 산야(山野)의 초목(草木)들이 구황식물로 지목되었다. 위백규는 구황식물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효용을 지적한 시(詩) 몇 편을 남겨 놓았다. 이를 통해 구황의 생생한 양상을 살필 수 있다.

위백규는 『연년행-일』에서 구황식물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 그에 따르면 “황정(黃精)과 상실(橡實) 그리고 자고(芡菰)는 하늘이 농민들에게 내려준 것이지만 주석처럼 쓴 맛이네”<sup>26)</sup>라고 묘사한다. 위백규가 언급한 3가지 황정, 상실, 자고는 모두 구황에 요긴하게 이용되는 구황식물이었다. 위백규는 황정과 자고에 대해서는 각각 한 시 1편씩 지었는데, 상실을 제목으로 삼은 시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외에 구황식물의 하나로 파악할 수 있는 갈근(葛根, 칩뿌리), 유근(榆根, 느릅나무뿌리)에 대해서도 한시(漢詩)를 남겼다.<sup>27)</sup>

먼저 위백규가 지은 『황정』의 본문과 번역문은 다음과 같다.

### 黃精

淡紫微甘初悅口

얇은 자색에 약간 단 맛으로 처음 입에 먹을만  
하지만

26) 魏伯珪, 『存齋全書』 『年年行-一』 (경인문화사 편, 1974 『存齋全書』 上, 35쪽); 黃精橡實與芡菰 天與農人味似錫.

27) 『葛根』과 『榆根』은 ‘丙子春甚饑’ 즉 병자년 봄 기근이 심하게 들었을 때 지은 시인데, 병자년은 1756년 영조 32년으로 위백규 39세 때이다.



纒傳腸腑便成糜	뱃속으로 전해지자마자 곧바로 돌덩이가 되었네.
非緣竄賊戕嘉穀	빼뜯어진 도적놈이 곱디 고운 벼를 쓸어버린 연유가 아니었다면
豈有朽根上共廚	어찌 썩은 뿌리가 주방에 이바지할 수 있었으랴 <sup>28)</sup>

위백규는 황정이 구황식물이라는 점을 그다지 인정하고 싶지 않다. 그는 황정을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썩은 뿌리’ 즉 ‘후근(朽根)’이라 규정해버린다. 처음에 먹을만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배고픔을 제대로 벗어나게 해주지 못하는 점을 안타까워 하다못해 비난하는 데까지 이른 것이다. 벼농사가 제대로 수확으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 즉 흉년에 이어진 기근이라는 한계 상황에 직면한 농민이 드러내는 푸념에 가까운 비난이다.

다음은 위백규가 자고(茨菰)에 대해서 읊은 시이다. 그는 자고에 대하여 평일 야산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어 내버려두고 있지만 기근이 일어나면 곧바로 쓰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 茨菰

在田自不妨嘉穀	밭에 있어도 스스로 곡식을 해치는 일이 없고
登鼎偏宜活萬民	솥에 들어가면 만민을 살려내기에 마침 어울리네.
最是歲歉方見用	흉년에 곧바로 쓰이기에 가장 좋건만
等閑平日野山春	평일에 봄마다 야산에 널려 있지만 내버려두고 있네. <sup>29)</sup>

위백규가 구황식물로 파악한 자고는 『산림경제』에 “산자고(山茨菰) 향명 까치무릇”으로 소개되어 있다. 『산림경제』에 까치무릇은 뿌리를 캐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홍만선은 까치무릇을 구황(救荒)

28) 魏伯珪, 『存齋全書』 「黃精」, (경인문화사 편, 1974, 『存齋全書』 上, 14쪽).

29) 魏伯珪, 『存齋全書』 「茨菰」, (경인문화사 편, 1974, 『存齋全書』 上, 13쪽).

항목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약재(藥材)의 하나로 서술하고 있다.<sup>30)</sup> 한편 서유구는 까치무릇을 근엽(根葉)을 모두 먹을 수 있는 12종의 구황식물(救荒食物)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첫 번째 구황식물로 소개하고 있다. 서유구에 따르면 뿌리와 잎을 채취하여 거친 껍질을 제거하여 깨끗이 씻어 삶아 익히고 물에 담가 뚫은 맛을 제거하고 썰서 익혀 먹는 것이었다.<sup>31)</sup> 이렇게 볼 때 자고는 구황식물이면서 약재로도 이용될 수 있는 야생 식물이었다. 위백규가 지적한 바와 같이 당시 농촌의 야산에서 널리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구황에 요긴한 구황식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위백규가 지은 『갈근(葛根)』의 본문과 번역문을 살펴본다. 이 시는 병자년 봄 기근이 심하게 들었을 때 지은 것이다. 병자년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1756년 영조 32년이다.

#### 葛根 - 丙子春甚饑

形似神苓麵似桃	형체는 신성한 복령같고, 가루는 광랑나무와 닮아
鍊成瓊膏遞糜糧	잘 반죽하여 치대면 윤기나는 덩어리 되어 죽 거리를 대신하네.
仙人強解塵間事	선인이 인간세상의 일을 애써 이해하여
故泄眞方救歲荒	짐짓 흉년을 구하려고 비방을 흘린 것이네. <sup>32)</sup>

갈근은 칩뿌리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 책에서 주요한 구황식물로 지목하였다. 위백규는 갈근을 복령, 광랑과 비교하여 묘사하고 있다. 복령(茯

30) 洪萬選, 『山林經濟』 권3, 治藥; 山茨菰 가치무릇 花似燈籠色白 上有黑點 故一名金燈籠 葉似韭 結子三稜 二月長苗 三月開花 四月苗枯 卽掘地採根 遲則腐爛 其根上有毛包裹 人不可識 可於有苗時 記其地 至期採之 刮去皮焙乾(寶鑑).

31) 徐有渠, 『林園經濟志』 『仁濟志』 권27, 附餘, 救荒, 濟饑總論에 들어 있는 根葉皆可食 一十二種 가운데 까치무릇<茨菰>이 들어 있는데, 『金華耕讀記』에서 인용한 것으로 나온다.

32) 魏伯珪, 『存齋集』 卷之一, 詩, 七言絕句, 葛根.

筍)은 소나무 뿌리 근처에서 기생하여 성장하는데 형체가 일정하지 않은 균류의 일종이다. 소나무 그루터기 근처 땅 속에서 찾아내어 채취하는데, 둥그스름한 덩어리 모양이고 속살은 희거나 분홍빛이 난다. 구황식물로 많이 이용되었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광랑(桃榔)은 야자과에 속하는 상록교목인데 목수(木髓)로 전분을 만들수 있다. 그리고 광랑은 면목(面木), 동종(董棕), 철목(鐵木) 등으로 불리우기도 하였다. 광랑으로 만든 전분을 ‘광랑분(桃榔粉)’이라 부르는데, 중국 운남(雲南)지역의 주요한 식재료였다. 아울러 광랑의 껍질은 부드러워서 두건을 만드는데 사용했으며, 떡을 만들기도 했다고 한다.<sup>33)</sup>

위백규는 복령이나 광랑나무를 구황에 활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효용성을 지닌 구황식물로 갈근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갈근을 이용하게 된 것이 선인(仙人)이 인간세상에 이로움을 전해주기 위한 은혜의 하나로 묘사한다. 선인이 인간 세상의 괴로움인 흉년 구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짐짓 갈근을 이용하는 ‘방문(方文)’을 누설한 것으로 설명한다. 이렇게 볼 때 선인이 인간세상의 일을 ‘강해(強解)’했다는 구절에서 ‘강해’의 의미는 “애써 이해하려고 하였다” 정도의 의미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이와 같이 위백규는 갈근이 갖고 있는 구황에서의 효용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고, 심지어 선인의 은혜, 선인이 누설한 비방(秘方), 진방(眞方)으로까지 풀이하고 있었다. 칙뿌리를 구황에 이용하는 것은 워낙 당연한 일 이어서 위백규가 묘사한 것도 그 당위성을 재차 강조한 것에 다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선인을 끌어들여 칙뿌리 묘방의 유구함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하였다.

위백규는 유근(楡根)을 묘사한 시에서 구황에 나선 시골 사람의 애처로운 처지에 공감하면서 관리들의 직무 방임을 고발하고 있다.

33) 姜判權, 『民國時期 雲南의 自然生態와 經濟貿易』, 『중국사연구』 78집, 2012, 105쪽.

### 榆根 丙子

冷竈疎烟煮赤榆	찬 부엌에 어찌다 느릅나무 삼느라 연기 펴오 르니
野人生活盡堪吁	촌사람의 생활은 참으로 견디기 어렵네.
如今國乏三年積	지금 나라에 3년의 축적조차 떨어졌는데
肉食諸君念也無	고기 먹는 나리들은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네. <sup>34)</sup>

위의 시에서 등장하는 구황식물은 유근인데, 실제 조선에서 수행된 구황의 일반적인 상황에 비추어볼 때 좀 더 부연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조선의 구황방(救荒方)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구황식물은 바로 송엽(松葉) 즉 솔잎과 유피(榆皮) 즉 느릅나무껍질이었다. 솔잎과 느릅나무껍질을 활용하는 구황방은 마치 단골손님인 것처럼 온갖 구황서(救荒書)에 주요한 구황방으로 등장하고 있다. 조선 전기 1554년에 편찬된 『구황촬요(救荒撮要)』에 수록된 구황방 가운데 ‘취유피즙법(取榆皮汁法)’이 있는데, 바로 느릅나무껍질에서 즙을 빼내는 방법이었다. 이 방법의 언해(諺解)를 보면 ‘느릅물 아술 법’ 즉 ‘느릅나무 껍질즙을 앗아내는 법’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구황촬요』에 느릅나무<榆>와 관련된 구황방이 여럿 소개되어 있는데, 느릅나무 껍질, 열매, 잎 등은 소개하고 있지만 뿌리를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거론하는 바가 없다. 이와 같이 살펴보았을 때 위백규가 지은 시의 제목이 유근(榆根)이 아니라 유피(榆皮)가 아니었을까 추정된다.

## 4. 농촌 현실의 폐단과 대응

18세기 후반 이후 19세기의 조선의 농촌 현실은 토지소유관계의 변동,

34) 魏伯珪, 『存齋集』 卷之一, 詩 七言絕句, 榆根.

국가 부세수취체제의 문란 등이 가속화되면서 농민의 생존여건이 지극히 악화되고 있었다. 정약용이 『목민심서(牧民心書)』를 비롯한 많은 글에서 19세기 초반 전라도 강진 지역을 중심으로 농촌사회의 문제적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논파한 바 있다. 그런데 우리는 위백규의 농시(農詩)를 통해 정약용의 글 속에 보이는 향촌사회, 농업현실의 실상과 대동소이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위백규는 장흥지역 향촌 사회에서 농민들이 부딪히고 있던 농촌 현실의 각종 폐단과 농민의 대응 양상을 묘사하고 있었다.

위백규는 장흥지역 농업여건, 농업생산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고 있었던 고농(雇農)을 둘러싼 폐단에 주목하였다. 18, 19세기 조선사회에서 고농은 고공(雇工)으로 불리기도 하였는데, 대부분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무전농(無田農)이었고, 생계를 꾸려나가는 데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던 빈농(貧農) 계층이었다. 고공들은 일시적인 고용상태 하에서 노동력을 발휘하여 획득한 고가(雇價)로 생계를 유지해나갔다. 이들은 농업 이외에 축성(築城)이나 치도(治道), 제방수축(堤防修築) 등의 작업에도 참여하고, 나아가 고가(雇價)가 높은 광산을 찾아 이동하기도 하였다.<sup>35)</sup> 고농은 날품팔이인 일고(日雇), 계절단위로 계약하는 계고(季雇), 해마다 계약하는 연고(年雇)로 나뉘어졌다.

고공은 당시 전라도 장흥지역에서 이앙기(移秧期)와 같은 농번기에 일시적으로 고용되고 있었다. 위백규의 농시 『연년행-일』에 나오는 고공 관련 묘사에서 이앙할 때 고공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고농 때문에 힘겨워하는 농인(農人)의 처지를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다.

傭值三十加點心

일꾼 샅이 삼십문에 점심까지 없어주니

35) 최윤오, 「18·19세기 농업고용노동의 전개와 발달」, 『韓國史研究』 77, 韓國史研究會, 1992, 79쪽.

浮氓鼓腹農舍螯	떠돌이는 배를 불리고 농인(農人)은 독만 오르네.
居士社堂舍念佛	거사와 사당패들 염불은 제쳐두고
雇錢滿糴兼魚肉	샀돈이 포대기에 가득 차 있고, 생선고기도 그 득하네. <sup>36)</sup>

위에 인용한 구절보다 앞부분에 늦모 내는 것을 가능하면 빨리 해야 한다는 상황을 설명하는 대목이 나온다. 위 인용문 가운데 “떠돌이는 배를 불리고 농인(農人)은 독만 오르네”라는 부분에서 늦모 내는 데에 동원되는 고공을 부리느라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을 볼 수 있다. 농민의 입장에서 고공은 모내기 한철에만 잠깐 농사일에 간여하는 뿌리가 없는 백성 즉 ‘부맹(浮氓)’이었다. 농민들은 고공을 떠도는 백성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에 거사(居士), 사당(社堂)과 같은 무리도 고공과 별반 다르지 않았고 보았다. 실제로 당시 위백규의 경험 속에서 거사와 사당패들도 고공들을 부릴 때 들어가는 샀돈을 다른 생선과 고기 같은 먹거리와 함께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위백규는 『연년행-일』의 다른 대목에서 고공의 부정적인 면모를 적나라하게 묘사하였다. 위백규는 “품꾼들 샀은 날마다 계속 오르는데(雇客色價日日增), (고공 노릇을) 해줄지 물어도 대답 없이 떠남 처다보네(問南不答故向北)”<sup>37)</sup>이라고 묘사하였다. 당시 장흥 지역의 고농들이 고가(雇價)를 더 높이기 위해 탄청을 부리는 모습을 눈앞에 떠오른다. 또한 고객(雇客)이라고도 불린 고공이 당시의 농촌현실에서 또 하나의 문제거리였음도 알 수 있다. 모내기 등 농사일의 일정 부분에 고공을 동원해야 하는 농업 여건 하에서 고공에 들어가는 경제적인 부담에 힘겨워하는 것

36) 魏伯珪, 『存齋全書』 『年年行一』 (경인문화사 편, 1974, 『存齋全書』 上, 35쪽).

37) 魏伯珪, 『存齋全書』 『年年行一』 (경인문화사 편, 1974, 『存齋全書』 上, 35쪽); 雇客色價日日增 問南不答故向北.

이 바로 당시 농민들이 직면한 농촌현실이었던 것이다.

18세기말 농촌현실에서 노동력의 수수(授受)를 둘러싸고 고주(雇主)과 고공 사이에는 고가(雇價)를 둘러싸고 갈등이 나타나고 있었다. 노동력 제공의 대가로 고가를 취득하여 생계를 유지해나가는 고공은 가능한 최대한 많은 고가를 받으려 하였고, 이와 반대로 고주는 고가의 지불이 생산비와 직결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최대의 농업수익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고가를 가능한 최소한으로 낮추려고 하였다.

한편 당시 농촌현실에서 농민들에게 가장 부담을 안겨주었고, 나아가 농민들의 파산, 유리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이 바로 환곡(還穀)이다.<sup>38)</sup> 국가적 진흥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환곡에 18세기에 걸쳐서 점차 부세 충당 기능이 부가되었고, 나아가 점차 환곡 자체가 부세로 변하는 과정을 거쳤다. 환곡의 부세화 경향이 강해질수록 농민들의 국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해가 갈수록 강화되었다. 환곡이 농민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게 만드는 원흉이 되고 있었다. 위백규는 자신이 목격한 환곡을 둘러싼 문란한 세태를 적실하게 농시(農詩)에서 묘사하였다.

『연년행-일』에서 환곡의 문란함을 절절하게 묘사한 곳이 2군데에 달한다. 앞부분에서 보리환자의 폐단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車還檢督正得時	보리 환자 검독관들 바로 제때를 만났네
縛人秧田索錢食	못논에 사람 잡아두고 돈내라 밥내라 성화라네.
倉監大言國穀重	창감은 큰 소리로 나랏곡식 소중하다 소리치고
猛打里胥鬻皆坼	마을 서리 때려잡아 불기짝이 다 터졌네. <sup>39)</sup>

38) 梁晋碩, 「18, 19세기 還穀에 관한 연구」 『韓國史論』 21, 서울대 국사학과, 1989, 237~315쪽.

39) 魏伯珪, 『存齋全書』 「年年行一」 (경인문화사 편, 1974, 『存齋全書』 上, 35쪽).

이 구절을 통해 보리수확이 끝나자마자 보리 환자를 서둘러 받아가려는 검독관(檢督官)과 창감(倉監)의 행태, 그리고 이들이 농인(農人)에게 돈과 먹을 거리를 토색질하는 장면을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릴 수 있다. 지방군현에서 발생하는 환자 <환곡>을 둘러싼 폐단은 이른바 삼정(三政)의 문란이라는 조선 농촌사회의 대표적인 문제였다. 삼정의 문란을 다룬 연구 논저에서 지적되고 있는 바와 같이 환곡의 폐단은 바로 수령, 서리들의 손에 의해 자행되고 있었다. 위의 시의 내용도 그러한 연구성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위백규가 거론한 검독관, 창감이 바로 환곡의 분급(分給)과 수봉(收捧)을 관장하는 관리들이었다.

위백규가 환곡을 둘러싼 문제를 지적한 두번째 구절은 미곡(米穀) 환자의 분급과 봉상(捧上)과 관련된 부분을 묘사한 것이다. 봄에 환자곡을 받았다가 가을에 갚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작태에 대해서 위백규는 간결하게 핵심만 추려 명쾌한 시어(詩語)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去月納倉精似珠	지난달 창고에 들일 때는 구슬같은 흰쌀이었는데
今日囊屑兼沙石	오늘 내어주는 것은 부스러기에 돌모래가 가득 이네.
輸時火印十八斗	받아올 땐 낙인찍힌 말로 열여덟 말이었는데
飜見小斗十一弱	문득 돌아보니 작은 말로 열한말도 모자라네. <sup>40)</sup>

위 구절에 따르면 가을에 구슬처럼 빛나는 흰쌀을 환자로 갚았지만, 봄철에 받아온 환자쌀은 부스러기에 돌모래가 가득찬 불량품일 뿐이다. 게다가 낙인(烙印)까지 찍힌 관두(官斗)로 18말이나 되는 환자를 받아왔는데, 집에 와서 다른 두(斗)로 되질해보니 소두(小斗)로 따져도 11말도 안 되는 지경이다. 향촌의 부세행정에서 두량(斗量) 즉 되질하는 과정은 탈

40) 魏伯珪, 『存齋全書』 「年年行一」 (경인문화사 편, 1974, 『存齋全書』 上, 35쪽).



법적이고 자의적인 횡령이 깊이 결부되어 있었다. 퇴질이라는 부세액의 계량 과정에서 사회적인 통념과 벗어나는 수령, 향리, 토호 등의 자의적인 경제적, 경제외적 권한 남용이 널리 자행되고 있었다.

위백규는 향촌의 군현 단위 통치체제에서 서리(胥吏)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이서(吏胥)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향촌 사회 개선론의 하나로 제시하기도 하였다.<sup>41)</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리들은 향촌사회에서 폐단의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었다. 위백규는 다음과 같이 서리의 폐단에 대해서 묘사하였다.

初秋結米傳雇租	이른 가을 결미는 품삯과 도지로 다 나가는데
胥吏動鈴數十色	서리들 구걸하는 구실은 수십 가지나 되네.
十月糶倉四品科	시월 창고에 들여야 하는 쌀은 네 종류일 뿐이
	지만
座首別監別求索	좌수 별감이 구하는 것이 따로 있다네. <sup>42)</sup>

농인들이 가을에 거두워들인 수확은 서리들이 구걸하는 수십 가지에 달하는 각종 구실에 남아나지 않고 있었다. 여기에 더해서 향소(鄉所, 鄉廳)의 좌수(座首)와 별감(別監)도 판주머니를 차려고 이것저것 요구하면서 한 뭉 볼 요량을 부리고 있었다. 서리들이 농민들을 토색(討索)하는 폐단은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만성화되어 있었다.

위백규는 서리의 횡포에 대해서 제대로 반격을 가하지 못하고 도리어 두려움에 떨며 맨몸에 곤장 맞는 일만은 모면하게 해달라고 하소연하는 농인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41) 이해준(1979), 위의 논문, 286쪽.

42) 魏伯珪, 『存齋全書』 「年年行一」 (경인문화사 편, 1974 『存齋全書』 上, 35쪽).

私債宿欠安可論	사채(私債)와 묵은 포함(逋欠)을 어찌 논할 수 있겠는가
但畏官人眼光純	진실로 두려운 건 다만 관인의 쏘는 듯한 눈초 리라고.
苟令身上免赤棒	진실로 맨몸에 적봉(赤棒)만 모면하게 해주신 다면
敢望飯餌厭口腹	어찌 감히 먹을 것이 입과 배에 만족시키기를 바랄 것인가.
黃精橡實與茨菰	황정(黃精)과 상실(橡實) 그리고 자고(茨菰)는
天與農人味似錫	하늘이 농인(農人)에게 내려준 것이지만 주석 처럼 쓴 맛이네. <sup>43)</sup>

위백규는 향촌사회에서 서리들이 자행하는 폐단을 형상화하면서도 자  
신의 기본적인 재생산을 위해 맨몸에 붉은 몽둥이<赤棒>로 얻어맞는 것  
만은 모면하게 해달라는 백성들의 처지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다. 위백규  
는 부세 납부와 연관된 서리의 폐단 등의 서술에 뒤이어 구황식물에 대한  
언급을 곧바로 이어붙이면서, 기근의 발생원인이 자연재해만이 아니라 부  
세행정의 문란함도 한 원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위백규는 흉년과 기근의 참혹함, 역병의 참상, 부세행정의 문란함 등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육식(肉食)  
하는 사람은 즉 벼슬아치라고 지목하고 있었다. 또한 구체적으로 향촌의  
농민들이 접할 수 있는 벼슬아치는 곧 군현의 수령일 수밖에 없다. 이렇  
게 벼슬아치가 제구실을 다하게 되면 시름을 거둘 수 있다고 토로한다.

위백규는 벼슬아치인 수령이 백성들의 먹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격  
정한다면, 분명 무엇인가 살아나갈 수 있는 방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43) 魏伯珪, 『存齋全書』 「年年行一」 (경인문화사 편, 1974 『存齋全書』 上, 35쪽).

있었다. 또한 산인(山人)의 처지에 있는 자신의 수심(愁心)이 사그라드는 가장 좋은 방도 역시 수령이 제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아마도 위백규 자신이 수령 즉 목민관(牧民官)으로 제 할일을 다하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로 볼 수 있다.

수령의 역할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위백규가 짧은 기간이지만 옥과 현감을 지냈다는 점이다. 동생인 위백순에 따르면 위백규는 옥과 현감으로 500여 일을 재임하면서 많은 치적을 쌓았다고 한다.<sup>44)</sup> 그에 따르면 위백규는 옥과현의 모든 병폐를 일거에 해소시키는 능력을 발휘하였다. 화속지(火粟紙)를 없앴고, 승폐(僧弊)를 줄였다. 그리고 어공(魚供)을 줄여 어촌(漁村)을 되살렸고, 철장(鐵匠) 등의 요역(徭役)을 줄여주었다. 게다가 계방촌(契防村)을 혁파하였고, 그 밖에 소소한 폐단을 바로잡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리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털어내고 공공됨을 보탬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백성들을 살찌게 하였다. 위백규가 옥과현감으로 재임하면서 보여준 행적은 목민관(牧民官)의 모범적인 모습 바로 그것이었다. 옥과현감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위백규가 쌓아놓은 치적은 그에 앞서 장흥 지역에서 세거하면서 축적하였던 향촌사회에 대한 분석과 대책 마련을 바탕으로 삼은 것이었다. 향촌의 군현 단위 행정의 선부(善否)에 따라 초래되는 따르는 백성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共感)이 자신이 지방 수령이 되었을 때 벌인 구폐(救弊) 행적의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 5. 맺음말

본문에서 전라도 장흥지역의 농업현실과 농민실상, 특히 곡물경작법과

44) 魏伯純, 『書溪先生文集』 권3, 行狀 「伯氏存齋先生行狀」(한국역대문집총서, 477, 경인문화사).

농업여건의 특색, 그리고 자연재해와 흉년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기근을 이겨내기 위한 구황의 특징, 향촌 사회에서 농민들이 부딪히는 각종 폐단과 대응 양상을 살펴보았다.

전라도 장흥 지역의 농업기술과 농업환경의 실상과 관련하여 벼농사의 기본적인 경종법(耕種法)으로 이앙법(移秧法)을 채택하고 있었다. 이앙법의 경우 이앙시기의 물문제와 노동력 동원 문제가 매우 중요하였다. 특히 만앙(晩秧) 즉 늦모를 너무 늦게 내면 일찍 내리는 서리를 맞게 될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었다. 이앙작업을 신속히 끝내는 것은 한 해 농사의 풍흉을 결정짓는 관건이었다.

가을에 피종하여 초여름에 수확하는 곡물인 보리는 신구(新舊) 미곡(米穀) 사이를 이어주는 요긴한 먹거리로 중요하였다. 늦은 봄에서 초여름에 걸쳐 생기는 농가의 궁핍 시기인 보릿고개를 넘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보리였다. 하지만 보리 수확의 시기가 이앙(移秧)하는 시기와 겹쳐서 농가에 어려움을 주고 있었다. 그리고 보리농사에서의 타작작업은 매우 고난도의 노동과정으로 지목되었다.

장흥지역에서의 농민들이 겪은 자연재해 가운데 특별히 주목되는 것이 충해(蟲害)였다. 충해가 가져다주는 소출 부진, 생산 감소에 대한 일반적인 지적 이외에 실제 충해의 위협과 그 실상을 생생하게 알려주고 있다. 특히 멸구, 즉 벼멸구로 인한 피해를 상세하게 전해주고 있다. 그리고 벼멸구를 방제하기 위해 말총키, 베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과 벼포기에 물을 끼얹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당시 참혹한 피해를 가져다주는 것이 한해(旱害)였다. 위백규는 1762년(영조 38)에 체험한 가뭄을 기록하였다. 모에서 겨우 싹이 터서 자라난 벼줄기가 쓰러져 가뭄에 타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병충해까지 시달리게 만들고 있었다. 위백규가 생활하던 전라도 장흥지역도 빈번히 받

생하는 자연재해와 그에 따른 흉년(凶年)의 어려움에서 예외적으로 벗어난 곳이 아니었다.

흉년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참혹한 기근(饑饉), 공포스러운 역병(疫病) 등을 동행하였다. 농민들의 입장에서 구황방(救荒方)을 직접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구황식물(救荒食物)을 획득하고 이를 조리하여 구황하는 것과 관련해서 위백규는 황정(黃精), 상실(橡實), 자고(茨菰), 갈근(葛根), 유근(楡根) 등을 시제(詩題)로 삼아 시를 지었다. 그리하여 구황식물을 활용하는 구황에 나설 수밖에 없는 농민의 처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위백규는 장흥지역 향촌 사회에서 농민들이 부딪히는 다채로운 농촌 실상, 각종 폐단에 대해서 충실히 묘사하였다. 그는 이양기(移秧期)와 같은 농번기에 고농을 고용하지 않을 수 없는 여건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모내기에 동원되는 고공의 처지를 묘사하면서 이와 더불어 고공 때문에 힘겨워하는 농인(農人)의 처지를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다. 모내기 등 농사일의 일정 부분에 고공을 동원해야 하는 농업기술 여건 하에서 고공을 부릴 때 들어가는 경제적인 부담에 힘겨워하는 것이 바로 당시 농민들이 직면한 농촌현실이었던 것이다. 또한 고공들이 일시적인 고용상태 하에서 노동력을 발휘하여 획득한 고가(雇價)로 생계를 유지해나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하였다.

위백규는 자신이 목격한 환곡을 둘러싼 문란한 세태를 적실하게 묘사하였다. 그는 보리수확이 끝나자마자 보리 환자를 서둘러 받아가려는 검독관(檢督官)과 창감(倉監)의 행태와 이들이 농인(農人)에게 돈과 먹을 거리를 토색질하는 장면을 선명하게 그려냈다. 그리고 되질이라는 부세액의 계량 과정에서 사회적인 통념과 벗어나는 수령, 향리, 토호 등의 자의적인 경제적, 경제적외적 권환 남용이 널리 자행되는 양상도 보여주고 있었다. 위백규는 향촌의 군현 단위 통치체제에서 서리(胥吏)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파악하고 있었다.

위백규는 흉년과 기근의 참혹함, 역병의 참상, 부세행정의 문란함 등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육식(肉食)하는 사람은 즉 벼슬아치라고 지목하고 있었다. 실제로 옥과현감을 지내면서 위백규는 옥과현의 모든 병폐를 일거에 해소시키는 능력을 발휘하였다고 전해진다. 그는 장흥 지역에서 세거하면서 축적하였던 향촌사회에 대한 분석과 대책 마련을 바탕으로 삼아 옥과현감으로 향촌사회의 병폐를 치유하는 정책을 실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18세기 후반 장흥지역의 향촌지식인으로서 위백규는 농촌 현실에 대한 정감있는 공감으로 바탕으로 농시(農詩)를 지었고, 그의 농시를 통해 당대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되짚어 볼 수 있었다. 앞으로 위백규 이외에 다른 인물들의 농촌, 농업, 농민과 관련된 사회시, 생활시, 농시 등을 같이 검토하여 당대와 전후 시기의 변동양상을 살피는 중요한 연구과제를 집중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 참고문헌

- 『農事直說』, 아세아문화사(農書 1).
- 徐有築, 『林園經濟志』, 『本利志』, 보경문화사.
- 魏伯珪, 『存齋集』(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DB-한국문집총간 243).
- , 『存齋全書』, 경인문화사.
- , 『書溪先生遺稿』, 경인문화사(한국역대문집총서 477).
- 洪萬選, 『山林經濟』, 한국고전번역원(한국고전DB-고전번역서).
- 姜判權, 『民國時期 雲南의 自然生態와 經濟貿易』, 『중국사연구』 78집, 2012, 91~127쪽.
- 具玩會, 『朝鮮後期の 賑恤行政과 郡縣支配: 守令의 역할을 중심으로』, 『震檀學報』 76, 震檀學會, 1993, 69~105쪽.
- 金頤會, 『존재 위백규의 문학 연구 - 18세기 향촌사족층의 삶과 문학-』, 以會文化社, 1995, 1~368쪽.
- 金容燮, 『增補版朝鮮後期農業史研究』 II, 一潮閣, 1990, 1~486쪽.
- 박명희, 『存齋 魏伯珪의 현실인식과 시적 형상화』, 『古詩歌研究』 18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6, 125~152쪽.
- 박해철 외 6인, 『조선왕조실록과 해괴제등록 분석을 통한 황충(蝗蟲)의 실체와 방제 역사』, 『한국응용곤충학회지』 49권 4호, 한국응용곤충학회, 2010, 375~384쪽.
- 梁晉碩, 『18, 19세기 還穀에 관한 연구』, 『韓國史論』 21, 서울대 국사학과, 1989, 237~315쪽.
- 염정섭, 『조선시대 농법 발달 연구』, 태학사, 2002, 1~474쪽.
- 李海濬, 『存齋 魏伯珪의 社會改善論 - 18세기말 鄉村의 自律性摸索을 中心으로-』, 『韓國史論』, 서울대 국사학과, 1979, 233~303쪽.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2005년도 벼멸구 예찰 방제 보고서』, 2005, 1~455쪽.
- 최상은, 『18세기 시가의 정서와 현실인식 지향 - 위백규(魏伯珪)의 한시(漢詩), 시조(時調), 가사(歌辭)를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24권, 반교어문학회, 2008, 53~77쪽.
- 최운오, 『18·19세기 농업응용노동의 전개와 발달』, 『韓國史研究』 77, 韓國史研究

會, 1992, 57~88쪽.

河元鎬, 『조선후기 度量衡 문란의 원인 연구』 『韓國史研究』 59, 한국사연구회, 1987, 105~136쪽.



## ABSTRACT

## Agriculture and Peasant in JangHeung County at the late 18th Century-Based on the Agricultural Poetry of Wi BaekKyu

Yeom, Jeong-sup

In this essay we focused agriculture and peasant in JangHeung County Jella Province at the late 18th Century, based on the agricultural poetry of Wi BaekKyu. Method of rice cultivation adopted Yiangbeop, which had the water problem and the problem of labor mobilization of rice seedling transplantation. The timing of the barley harvest was giving difficulty in rice seedling transplantation because two work were rolled up generally. Insect caused damage and drought caused damage was inevitably accompanied by famine and plague. So peasant had endeavored to gain famine relief plants and so on.

Peasant in JangHeung County suffered from temporary worker, called Gogong. He had gone through struggle to hire Gogong esp. in rice seedling transplantation season. Gogang argued to pick up more money, so people of all social stratum acted as Gogong. Meanwhile peasant was distressed by exchange grain called Hwangok, which brought about corruption and graft. Wi BaekKyu emphasized on the role of government official as regards relieving peasant from various suffering.

**Key Words** Wi BaekKyu, Agricultural Poetry, JangHeung County, Famine Relief, Peasant.

논문투고일 : 2015. 10. 1
심사완료일 : 2015. 11. 24
게재확정일 : 2015. 12. 8